

## 2026년 일본 하계 해외여행 예약동향 (JTB 발표)

'26. 7. 6.(월) / 도쿄지사

### □ 총괄

- (여름휴가 기간) 일본의 전통 명절인 오봉(お盆) 기간(8. 13.~8. 16.) 및 공휴일(8. 11.)과 연차휴가 2일을 연계할 경우 8. 8.(토) ~ 8. 16.(일) 까지 최대 9연휴 전망('25년과 동일하게 최대 9연휴 사용 가능)
- 단, 혼잡과 여행비용 상승을 피하기 위하여 연휴 직전(~7. 14.) 또는 이후(9월)에 여행을 계획하는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

### < 일본 여름휴가 연휴('26년 8월) >

| 일      | 월  | 화          | 수  | 목  | 금  | 토  |
|--------|----|------------|----|----|----|----|
| 2      | 3  | 4          | 5  | 6  | 7  | 8  |
| 9      | 10 | 11<br>산의 날 | 12 | 13 | 14 | 15 |
| 16     | 17 | 18         | 19 | 20 | 21 | 22 |
| 오봉(お盆) |    |            |    |    |    |    |

- (해외여행 수요) 일본인의 소득 및 보너스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나 지속되는 물가 상승 및 항공운임 부담 등으로 해외여행 수요는 전년比 다소 감소할 것으로 예측
- 단, 한국은 여전히 일본인이 가장 선호하는 여행지로 조사되어 방한수요는 타 지역 대비 견조한 것으로 판단
- (여행트렌드) 비용 대비 만족도가 높은 여행지를 선택하는 '가성비 소비' 성향이 뚜렷하게 나타나며, 여행경비 부담 및 혼잡에 대한 우려로 여행시기가 본격적인 여름휴가 이전인 7월 또는 9월 실버 위크(9. 19.~9. 23. 5연휴) 등 8월 오봉 연휴 전후로 분산 경향

## □ 해외여행 예약동향

- (여행자수) '26년 하계휴가(7. 15~8. 31.) 기간 중 일본인의 국내외 여행수요는 7,117만 명으로 팬데믹 이전 수준에 근접하였으나, 해외여행은 71.6%에 머물러 회복세가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남. 또한, 국내여행이 해외여행 예측치의 약 32배로 나타나 일본 국내여행 중심의 여행패턴이 지속되는 것으로 분석
- (여행경비) 1인당 평균 여행예산은 323,000엔(전년비 106.3%)으로 조사되었으며, 예산 구간별로는 ▲10~20만 엔(25.5%, 전년비 -1.1%p), ▲40만 엔 이상(22.6%, 전년비 +1.1%p), ▲5~10만 엔(21.2%, 전년비 +2.7%p) 順으로, 저가 또는 프리미엄 소비로 양극화되는 경향

| 구분         | 2026년    |        | 2025년    |        | 2019년    |
|-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|----------|--------|----------|
|            | 인원       | 전년비    | 인원       | 전년비    | 인원       |
| 총 여행자수     | 7,117만 명 | 95.4%  | 7,458만 명 | 100.8% | 7,543만 명 |
| 국내여행       | 6,900만 명 | 95.6%  | 7,220만 명 | 100.3% | 7,240만 명 |
| 해외여행       | 217만 명   | 91.2%  | 238만 명   | 117.8% | 303만 명   |
| 1인당 평균여행경비 | -        | -      | -        | -      | -        |
| 국내여행       | 48,500엔  | 103.2% | 47,000엔  | 106.8% | 36,500엔  |
| 해외여행       | 323,000엔 | 106.3% | 304,000엔 | 110.9% | 232,000엔 |

- (인기목적지) '올 여름 여행목적지'에 한국(1위, 전체의 26.2%), 대만(16.2%), 중국(10.1%), 홍콩·마카오(9.4%), 아메리카·캐나다(8.4%), 태국(5.5%) 등 전통적으로 인기 있는 근거리 지역 중심으로 상위권 형성
- 한편, '향후 해외여행 의향'에 '다시 방문하지 않겠다'는 응답이 중국(7.4%), 한국(4.1%), 괌·사이판(4.0%), 동남아시아(3.7%) 順으로 나타나 한국도 비교적 높게 나타남. 따라서 신규 방한객 유치뿐 아니라, 지역·미식·계절 콘텐츠 등 차별화된 콘텐츠를 지속 육성할 필요

- (여행일수) 3박 4일(23.0%, 전년比 +1.9%p), 7박 이상(20.9%, 전년比 -4.7%p), 5박 6일(20.1%, 전년比 +4.1%p) 順으로 장기 체류보다는 중·단기 여행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

붙임: 참고문헌 1부. 끝.

## 붙임

## 참고문헌

■ JTB, 2026년 여름방학 여행동향 (2026. 7. 2.)

[https://www.jtbcorp.jp/jp/newsroom/2026/07/02\\_jtb\\_doukou.html](https://www.jtbcorp.jp/jp/newsroom/2026/07/02_jtb_doukou.html)

■ Travel voice, 2026년 여름방학 여행동향 예측, 총 여행자수는 5% 감소한 7,117만 명, 절약 지향으로 해외 및 국내여행 모두 전년 수준을 하회할 것으로 전망 (2026. 7. 2.)

<https://www.travelvoice.jp/20260702-160104>